

당신이 설악산 생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지 않아요



설악산은 내가 지킨다.
설악산 지킴이 서포터즈 참여!

케이블카에 대한 소식과 온/오프라인 캠페인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여신청** <http://goo.gl/forms/4pGjlsIH2S>



시민의 힘을 보여준다.
케이블카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에 항의!

환경부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TEL. 044-201-6001 FAX. 044-201-6000

SNS <https://www.facebook.com/ecosky58>, https://twitter.com/eco_sky58

환경부 공원생태과 TEL. 044-201-7316 FAX. 044-201-7310



케이블카 문제는 내가 알린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공유!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SNS 등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13-34 TEL. 02-747-8500 FAX. 02-766-4180

설악산을 깨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 녹색연합이 만들고, 라운드트라이앵글이 디자인하다.
이 줄이는 나무를 사랑하는 재생종이로 만들다.



지금, 설악산의 생명들이 위협하다!

설악산의 혈맥을 자르고 자연을 파괴하는 케이블카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부족으로 실패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은 특별하다!

1 생태계의 절대 핵심지역 설악산

설악산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특별한 산입니다. 여기까지 꼭 케이블카를 설치해야만 할까요?

2 양의 해 진짜 주인공, 산양의 서식지 설악산

산양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희귀한 멸종위기동물이며 천연기념물 제217호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800여 마리 중 1/4 정도가 설악산에 살고 있습니다. 예민한 산양은 케이블카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식지가 조각조각 나뉘지고, 산양은 쫓겨날 것입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힌 산양의 모습



3 전국 케이블카 설치의 중심 설악산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뽕리면 지리산, 한라산, 신불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에 케이블카가 줄줄이 들어서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에 관한 5가지 진실

하나, 케이블카는 환경에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환경이 좋아진 사례는 없습니다. 다수의 철탑이 들어서는 자리는 모두 파괴됩니다. **설치공사와 운영의 영향으로 야생동식물이 점점 살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다신 볼 수 없게 됩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훼손이 더욱 극심해 집니다.

둘, 장애인과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케이블카가 필요하지 않나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일회성 관광이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설악산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복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낙후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이미 2012년에 국가연구기관(KEI)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갑자기 경제성이 생길 수 없습니다. 사업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넷, 해외에도 케이블카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대부분 국제적으로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예전에 지어졌습니다. 국립공원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미국은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새로 설치하기는커녕 있는 것도 없애는 추세입니다.

다섯,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케이블카가 별로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는 통영 미륵산, 설악산 권금성, 부산 금정산, 구미 금오산, 대구 앞산, 정읍 내장산, 대구 팔공산, 완주 대둔산, 독도, 해남 두륜산, 무주 덕유산, 여수 해상케이블카 등 이미 많은 케이블카가 운행 중입니다.

